

“서민경제 살리고 민생 회복시키겠다”
정진욱 동구남구갑 당선인

고물가 민생파탄, 경제 추락을 가속화한 윤석열 정권의 실정(失政)을 바로잡아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의정활동의 중점을 두겠다. 이 시대 진정한 개혁이자 시대적 과제인 윤석열 정권 청산과 정권탈환을 위해 맨 앞자리에 서겠다.

“더 살기 좋은 서구 만들어 나가겠다”
조인철 서구갑 당선인

상식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한다. 잘사는 광주, 더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 공약과 정책을 잘 수행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서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한다. 무

“힘 있는 호남정치 새 모델 보여주겠다”
정준호 북구갑 당선인

호남 유일의 청년 당선인으로서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지역이 처한 문제,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에 답을 내놓겠다. 북구의 가치를 두배로 올리겠다. 쇠락한 상권을 되살려 청년들도 북적이는 활력 넘치는 북구를 만들고, 답답한 교통환경을 개선해 편리하고

“정권 심판·검찰 개혁 선봉장 되겠다”
박균택 광산구갑 당선인

정치 신인인 저를 정권탈환의 선봉장으로 선택해 주신 광산구민들의 큰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정권 교체와 광산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구민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승리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중단없는 목표 발전 이루는데 온힘”
김원이 목포 당선인

큰 책임감, 늘 처음의 마음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중단 없는 목표 발전을 이루겠다. 일 잘하는 국회의원, 힘 있는 재선 의원이 돼 반드시 보답하겠다. 포용과 통합, 상생의 정치, 하나되는 목포에 앞장 서겠다. 목포시민의 뜻을 받

“여수 정치문화 쇄신 통해 지역발전”
조계원 여수을 당선인

‘무능, 굴종, 파탄, 불통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해 달라’는 여수시민의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다.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는 여수 정치문화를 청산하라’는 시민의 명령도 가슴에 새기겠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청산

“상생 클러스터·동부권 의대 유치 전력”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당선인

46년 만에 전남 여성 정치인을 탄생시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성실히 일해나가겠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의 민원 해결과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 도농 간 격차를 줄이

“김대중 정신 계승, 호남정치 복원”
이개호 담양함평영광장성 당선인

4선 중진의원으로서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정치를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호남은 우리나라 개혁정치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호남 지역 또는 호남에 고향을 둔 정치인들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그 분을 이을 만한 리더로 성장하지

“지역발전·정치복원·정권교체 최선”
박지원 해남완도진도 당선인

해남완도진도를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서 꼭 정권교체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남은 3년은 제발 변해야 한다. 김건희, 채상병, 이태원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 서민경

남구 대촌에 있는 산업단지 두 곳에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어르신 복지, 교육, 교통 문제 등도 해결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 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 발전을 주도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호남정치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활짝 열겠다.

능, 무책임, 무도한 불통의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민생은 파탄나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평화는 위기를 맞았다. 이번 선거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싹 바뀌보자!’는 광주시민과 서구주민의 열망이라 생각한다.

그 뜻을 잘 받들어 정권교체, 그리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입’이 아닌, ‘일’로 바뀐다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쾌적한 북구를 만들겠다. 빈약한 문화향유공간을 채워 내 집 앞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북구를 만들겠다.

존재감이 사라진 호남정치를 복원해내겠다. 이념에 치우치는 정치가 아닌 지역이 마땅히 챙겨야 할 실리를 확보해 균형있고 힘 있는 호남정치의 새 모델을 보여드리겠다. 민생을 되살리고 검찰독재정권에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겠다.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뿌리겠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4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고, 국회에서는 가장 힘 있는 정치를 하겠다. 광산구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정권 교체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

들어 저 김원이가 윤석열 정권 심판, 맨 앞에 서겠다. 오직 목포시민만 믿고, 옹호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 중단 없는 목표발전, 반드시 이루겠다. 목포의 대 유치, 목포역 대개조, 목포·신안 통합, 해상풍력 메카 목포 등을 제대로 마무리하겠다.

오직 목포, 오직 민생만 생각하며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목포시민 삶의 현장 곳곳에 늘 함께 하겠다.

하고 쇄신하겠다. 쇄신, 상생과 협력으로 새로운 여수를 만들고 시민의 삶을 챙기는 ‘든든한 머슴’이 되겠다.

‘여수형기본사회, 국제해양관광수도, 남해안 메가시티의 중심, 기회의 땅 청년도시, 쾌적한 안전도시, 다시찾는 휴양·관광·레저도시, 신산업 중심 성장도시 여수’는 시민들께 드리는 약속이다. 여수시민과 함께 여수의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이뤄내겠다.

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겠다. △순천-광양-곡성-구례 상생클러스터 구축 △광양제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남 동부권 통합물류센터 건립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섬진강유역 환경유역청 설립 등 5대 공약은 지역 발전의 로드맵이 될 것이다.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지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못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적, 개혁성, 포용력과 민주적 자세, 정책 중심의 리더십을 계승해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도록 출선하고 노력하겠다. 아울러 4선의 원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약속드린 지역발전 공약들을 조속히 그리고 성실히 이행해 우리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해 지방시대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제, 남북 관계, 외교, 민주주의가 더 이상 파탄나지 않도록,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 대통령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지지하고 잘못된 것은 호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정치 선배로서 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생산적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는데 저의 경험과 경륜을 쏟겠다. 지역발전, 정치복원,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호남정치 1번지 위상 되찾겠다”
안도걸 동구남구를 당선인

낙후된 광주경제를 살려내는 ‘큰 일꾼’이 되겠다. 광주 심장부인 원도심의 맥박이 다시 고동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바이오의료, 문화관광산업을 키워내겠다. 벤처기업 창업이 줄을 잇고, 고향 청년들이 집밥 먹는 일자리가 쏟아지고, 아시아문화전당 명품

“나라다운 나라, 서구 새 미래 열겠다”
양부남 서구을 당선인

저의 승리는 윤석열 정권을 향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대한민국과 서구을의 발전을 염원하는 유권자와 광주시민, 국민의 승리라 생각한다. 약속드린대로 후퇴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유권자

“북구의 가치 높여 광주의 심장으로”
전진숙 북구를 당선인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마음을 다잡겠다. 무능하고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과 당당하게 맞서겠다. 무너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

“검찰독재에 맞서 맨 앞에 설 것”
민형배 광산구를 당선인

윤석열 검찰독재를 신속하게 끝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는 데 매진하겠다. 공약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착실하게 이행하겠다. 광산과 광주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주셨지만, 한편으론 미덥지 않아 하셨다고 본다. 그래서 조국

“여수 중심 전남 동부권 시대 열겠다”
주철현 여수갑 당선인

전남 동부권에서 유일한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더 많이, 더 부지런히 뛰어나며, 더 많은 성과로 보답하겠다. 윤석열 정권 심판과 호남 중심 민주정권 창출, 여수 중심 전남 동부권

“인구 100만 남해안 통합생활권 조성”
김문수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

보다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마음에 새기고, 의정활동에 한 땀 한 땀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다양한 순천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앞으로 나가며, 순천시를 위해 헌신하겠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영산강 유역 초광역 지방정부 시작”
신정훈 나주화순 당선인

윤석열 검찰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막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당이 되도록 하겠다. 성과로 꼭 보답하겠다. 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 시·군민들의 땀방울

“농어민 안정·지방분권 강화 등 노력”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인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지방의원들과 함께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의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챙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뚝뚝뚝 나아가겠

“인구소멸 대응·농산어촌 회생 주력”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당선인

무능한 정권을 강력히 심판하고 낙후된 지역과 인구소멸 위기의 지역을 위해 더욱 힘쓰라는 군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과 성원에 감사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2대 임기 동안 민주, 민생 등 각종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공연을 보려고 관광객이 밀려드는 ‘글로벌 명품부자도시 광주’를 만들어 내겠다. 제2순환도로 소태·학운IC 진입로 확장, 원도심 랜드마크형 주차타워 신설, 충장금남상권의 디지털백화점화 등 생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큰 정치인’으로 동구가 호남정치 1번지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통, 예산통, 정책통’의 역할을 해내겠다.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갈망하시는 많은 요구와 과제를 기억하고, 국회에서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힘껏 일하겠다. 이재명의 호위무사에서 서구의 호위무사로 거듭나겠다. 국민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 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열겠다.

다. 북구를 광주의 심장으로 만들겠다. 일자리가 넘쳐나는 관광 도시, 미래를 이끄는 첨단산업 도시, 흥과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 도시, 북구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 북구의 가치를 더욱 높일 것이다.

늘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 그리고 어려움, 나아가 모든 일상에 귀 기울이겠다.

혁신당이란 대체재를 두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고 명령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이 더 강하게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맨 앞에 서겠다. 윤석열 정권과 확실하게 싸워 당내 정치적 입지를 키우겠다. 그렇게 확보한 정치적 중랑감을 토대로 광주가 가져야 할 정당한 몫을 가져오겠다. 광주의 몫을 챙겨야 할 때는 광주의 동료 의원들과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겠다.

시대를 약속드렸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의원으로, 무도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겠다.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호남 중심의 민주정권을 창출하는데 앞장서겠다. 여수가 중심되는 전남 동부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 초선 때보다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정직한 심부름꾼이 되겠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순천대 의대와 병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수도권 대도시에 대응하는 인구 100만 남해안, 남중권 통합생활권을 조성하겠다. 순천-여수-광양의 상생과 협력에 앞장서 특례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순천의 정치를 상생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겠다. 서로를 건전하게 비판하고, 토론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순천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이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 지방소멸에 대응해 나주와 화순이 중심이 되는 ‘영산강 유역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시작하겠다.

나주에는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의 클러스터, 화순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 농업인 기본법 제정과, 새양곡관리법, 과일산업진흥법 등으로 농업·농촌에 희망을 만들겠다.

다.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어, 민생을 회복하고 서민경제를 회복시키겠다. 절망에 빠진 대한민국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

농어민의 안정된 삶 도모,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지방분권 강화 통한 균형 발전 도모 등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에 저의 모든 경험과 능력을 더 하겠다. 이웃 모두를 위한 정치, 사회적 약자의 옆에서 함께 나아가는 정치를 하겠다.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하고 분단된 한반도 통일의 기운을 드높이는 역할도 감당하고자 한다.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과 농산어촌 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하겠다. 영암·무안·신안의 현안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3선의 힘을 통해 강력한 정권 심판, 지속적인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다.